

프로야구 전망대

‘파죽의 4연승’ KIA, 호랑이 포효 이어간다

14~16일 광주 키움전...17~19일 잠실 두산전 승률 0.462 리그 공동 5위...활화산 타선 기대

파죽지세를 달리고 있는 KIA타이거즈가 이번 주 상승세를 이어간다.

KIA는 지난주 주중 삼성라이온즈에 1승 1패(1경기 우천취소)를 거둔 뒤 주말 한화이글스를 상대로 스윙승을 달성했다. 그 결과 6승 7패로 승률 0.462를 기록, 스페르마진을 -1로 줄이면서 한화, NC다이노스와 함께 리그 공동 5위에 올랐다.

선두권과의 격차는 확연히 줄었다.

리그 공동 1위 LG트윈스, KT위즈와는 3.0게임차다. 3위 삼성과는 2.5게임차까지 좁혀졌다. 4위 SSG랜더스와는 1.0게임차다.

밑으로는 8위 롯데아이언즈와 1.0게임차, 9위 두산베어스·10위 키움히어로즈와는 각각 1.5·2.0게임차다.

이번 주 6연전에서 하위권 키움과 두산을 만나는 만큼, 좋은 결과를 만든다면 상위권 도약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KIA 타선의 분위기는 뜨겁다. 지난주 팀 타율 0.318로 리그 1위를 기록했고, 홈런은 6개로 공동 1위. OPS(출루율+장타율)는 0.891로 2위에 자리했다.

한준수의 방망이가 특히 매섭다. 그는 지난주 5경기에서 16타수 8안타 1홈런 4타점 타율 0.500으로 팀 타선을 이끌었다. 지난 12일 한화의 경기에서는 9회초 2사 상황 타석에 올라 상대 3구째 127km 커브를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썩기 솔로포를 터트렸다. 전날에는 8회 2사 1·3루에서 중전 안타로 결승타를 기록, 팀의 역전승을 이끌기도 했다.

2년차 외야수 박재현의 활약도 눈에 띈다. 박재현은 지난주 5경기에서 18타수 7안타 4타점 타율 0.389를 기록했다. 그는 지난주부터 주전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타격 슬럼프로 2군에 내려간 오선우의 공백을 때우며 주전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빠른 발과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로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호 감독은 “(박)재현이처럼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며 “안타를 치면

서 자신감을 찾고 있고 팀 분위기에 큰 도움이 된다. 잘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나성범 역시 상승세다. 지난주 5경기에서 19타수 6안타 2홈런 8타점 타율 0.316을 기록하며 팀 내 타점 1위를 유지했다. 지난 11일 한화전과 8일 삼성전에서 연이어 홈런을 터트리며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밖에도 데일(타율 0.364), 카스트로(0.348), 김선빈(0.353) 등도 고른 활약을 펼치며 타선을 뒷받침하고 있다.

마운드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양현종은 지난 7일 삼성전에 선발 등판해 5.2이닝 2피안타 3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직전 LG전에서의 부진을 씻어낸 투구였다.

‘에이스’ 제임스 네일은 지난 10일 한화전에서 7이닝 6피안타 4탈삼진 3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첫승을 수확했다.

올려 역시 지난 12일 한화전에서 5이닝 2실점으로 승리를 따내며 3차례 등판에서 모두 팀 승리를 이끄는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

불펜에서는 김범수와 성영탁 등이 고른 활약을 펼치며 뒷문을 지키는 중이다.

KIA는 이런 흐름 속에서 주중 키움과 맞붙는다. 키움은 현재 4승 9패 승률 0.308로 리그 10위에 머물러 있다.

평균자책점은 4.98로 KIA(5.16)를 웃돌지만, 팀 타율은 0.241로 KIA(0.267)를 밑돈다. 불펜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만큼, KIA로서는 타선의 집중력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만날 키움은 14일 하영민을 선발로 내보낼 예정이다. 이에 KIA는 양현종을 선발로 투입한다.

키움과의 일정을 마친 KIA는 주말 잠실로 이동해 두산과 3연전을 치른다.

KIA가 이번 주 상승세를 이어가며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도체육대회’ 구례서 폐막...도민 열정 빛나

순천, 종합 우승으로 3연패
2위 여수 준우승·3위 광양

이웃별·허정현 공동 MVP
내년 고흥군서 개최 예정

전남 도민 스포츠 대축제인 ‘제65회 전남도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꿈을 모아 구례로, 힘을 모아 전남으로’를 구호로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구례군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2012년 이후 14년 만에 구례에서 다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총 7137명(선수 4,581명·임원 2,556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축구, 육상 등 23개 종목에서 시·군 간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 결과 종합우승은 순천시가 차지했다. 순천시는 종합득점 4만3625점을 획득하며 제63회 대회부터 3연패를 달성했다.

여수시가 4만1875점으로 준우승을 차지했고, 광양시가 3만3775점으로 3위에 올랐다.

순천시는 바둑, 배구, 족구, 소프트테니스 등 4개 종목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우승을 견인했다. 여수시는 태권도, 사격, 수영, 유도, 탁구, 육상(트랙필드) 등 다수 종목에서 강세를 보이며 종합 2위에 자리했다.

이어 4위는 무안군(3만1500점), 5위 영암군(3만225점), 6위 목포시(2만9675점), 7위 신안군



13일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5회 전남도체육대회’ 수상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2만9550점)이 각각 차지했다.

최우수선수상(MVP)은 수영에서 4관왕을 달성한 이웃별(화순군)과 육상 100m·200m·400m 계주에서 3관왕에 오른 허정현(목포시)이 공동 수상했다. 허정현은 100m(10초69)와 400m 계주(41초53)에서 각각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며 뛰어난 기량을 입증했다.

지난해 MVP였던 김해은(여수시)은 사격 공기소총 10m에서 600점 만점을 기록하며 대회 타이틀과 함께 2연패를 달성했다.

모범선수단상은 나주시, 모범종목단체상은 전라남도태권도협회가 각각 수상했다.

장려상은 담양군·함평군·완도군이, 특별상인 화합상·질서상·우정상은 장성군·영광군·강진군이 각각 차지했다.

성적 향상도를 평가하는 성취상은 개최지 구례군이 1위를 차지했으며, 곡성군과 무안군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특별봉사상은 구례군 의용소방

대연합회가 수상했다.

최영주 전남도 관공체육국장 “구례군의 철저한 준비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이번 대회가 도민 화합과 전남 체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14년 만에 구례에서 열린 대회가 도민 성원 속에 잘 마무리됐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단과 대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시고 든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 마지막 날 열린 축구 결승에서는 강진군이 순천시를 2-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베드민턴은 신안군, 소프트테니스는 순천시, 탁구는 여수시, 테니스는 영광군이 각각 정상에 올랐다.

제66회 전라남도체육대회는 내년 고흥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구례=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이도현 금빛 동반, 한국 클라이밍 ‘아시아 정상’

메이산 선수권대회서 서재현 은메달 등 메달 낭보

대한민국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팀이 2026 시즌 첫 국제무대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회장 조좌진)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중국 메이산에서 열린 ‘2026 월드클라이밍 메이산 클라이밍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이도현의 금메달과 서재현의 은메달을 포함해 선수단 전원이 고른 활약을 펼쳤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회 주인공은 단연 이도현이었다. 남자부 불더 결승에 나선 이도현은 고난도 루트마다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중력을 저항하는 폭발적인 무브를 선보였다. 타 국가 선수들이 고전하는 구간에서도 압도적인 파워로 완등에 성공한 그는 당당히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불더링 아시아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이도현은 기세를 몰아 리드 종목에서도 4위에 이름을 올리며 올라온더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여자 리드 부문에서는 서재현이 명불허전의 실력을 뽐냈다. 결승에서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루트를 공략해 나간 서재현은 일본의 강호 아이모리

에 이어 2위에 오르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이모리가 전 루트 완등이라는 무결점 경기를 펼치는 압박 속에서도 서재현은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최고점에 도달하는 투혼을 발휘해 세계 정상급 기량을 다시금 증명했다.

속도 경쟁이 치열했던 스피드 종목에서도 신예들의 약진이 돋보였다.

남자부에서는 김동준과 조진우가 각각 8위와 12위를 기록하며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확인했다. 여자부의 정지민(8위)과 성한아름(10위) 역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 클라이밍의 두터운 선수층을 과시했다.

대한산악연맹 조좌진 회장은 “시즌 첫 단추를 완벽하게 끼운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향후 예정된 국제대회와 아시아게임에서도 대한민국 클라이밍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성공적으로 시즌 문을 연 대표팀은 이번 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전력을 재 정비한 뒤 본격적인 메달 사냥을 이어갈 계획이다.

황해운 기자 nab@gjdream.com



이도현 불더 경기 장면.



서재현 리드 경기 장면. 사진제공=대한산악연맹